

전남,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국 1위

유가 고공행진 속 태양광·풍력 등 전국 총 생산량 중 28% 차지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태양광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 2006년 전국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522만5천Toe(석유환산물) 중 28%인 148만811Toe를 생산,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의 에너지 생산량은 원유 18%

천85만배럴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100달러대의 국제유가를 감안하면 연간 11억달러의 절감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에 이어 경기 75만215Toe, 울산 58만8천964Toe, 강원 58만7천303Toe, 충북 46만2천338Toe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전남은 광양제철을 비롯한 여수화학산업단지 등 에너지를 다양 소비하는 중공업단지가 많아 전국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의 18%인 연 4천만여Toe의 에너지를

사용, 전국 최다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지난 2000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총력을 기울여 태양광, 축산분뇨, 그리고 조류등 지역 곳곳에 잠재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를 생산, 전국 최대 신재생에너지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최장주 전남도 과학기술과장은 “앞으로도 남악신도시를 비롯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신도시와

▲Toe= 석유환산물로서,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t에 발열하는 간접률을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다.

신·개축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서·남해안의 빠른 조류와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해 전남 지역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가용 타고 금강산 관광

자차용을 이용한 금강산 관광이 처음으로 실시된 17일 관광객을 태운 승용차들이 동해선 육로 비무장지대 남측 구간을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 위기 시작... 생필품 값 잡아라”

李대통령 물가대책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위기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물가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4·11면〉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업무보고 모임을 통해 “불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에 대해 우리가 집중 관리하게 되면 전체 물가는 상승해도 50개 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세계경제가 매

우 어려진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뗀 뒤 “점점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어 정부는 삼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물가 관리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해 “에너지 문제 가 삼각하다”면서 ‘자원외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사료, 곡물 가격이 짧은 기간에 충격적 가격 인상이 있었다. 일찍이 보지 못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원자재는 단기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중국, 인도 등의 국가원수들이 맹렬하게 자원확보를 위해 다닌다. 한국도 나와 총리, 장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원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뭘 했는지, 미리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원확보’가 기업을 드는 것인 만큼 확실한 자원확보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석유개발공사를 대형화하는 등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에너지 절약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광주, 러 유명 미술관 분관 유치 나선다

〈에르미타주·트레티야코프 등〉

市, 타당성 용역 의뢰

광주시가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맞춰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세계적인 미술관·박물관의 광주 분관 유치에 나선다.

시는 17일 국제적인 미술관·박물관의 광주 분관유치를 위해 최근 광주발전 연구원에 세계적인 문화 예술 시설 등의 광주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를 기관의 분관을 광주에 유치하려는 것은 문화 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시가 이를 위해 우선 검토하고 있

는 곳은 러시아의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박물관),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푸시킨 미술관 등이다.

시는 이미 구엔하임 미술관, 풍피우 센터,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미술관, 박물관이 세계 각국에 분관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러시아 주요 미술관의 분관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국립 에르미타주 미술관은 미술관은 영국의 대영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과 더불어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힌다.

트레티야코프 미술관은 11세기부터 20세기 초반에 제작된 13만점 이상의 러시아 예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러시아 미술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이집트 고미술을 포함해 모네, 르누아르 등 인상파 등 유럽 대가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푸시킨 미술관 등이다.

시는 오는 4월께 광주발전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을 경우 분관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한 뒤 구체적인 유치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러시아 유명 미술관의 분관은 광주로 유치할 경우 문화적 파급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를 미술관의 경우 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분관 유치 요청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져 있어 광주로서는 호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고학력-고임금 여성일수록 결혼 안한다

KDI, 출산율 현황 분석

여성의 학력과 임금이 높아질수록 결혼을 경험할 확률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7일 ‘출산율 감소현상 및 요인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출산 감소의 중요한 원인인 결혼의 지역 및 단념 현상에 대해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여성의 혼인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

며, 1990년에는 여성의 결혼 중 83.3%가 27세 이하 여성의 결혼이었던 반면 2005년에는 그 비율이 36.9%에 불과할 정도로 결혼이 지역 또는 단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여성의 전반적인 학력 향상은 결혼경험 확률을 5.2~8.5%포인트 줄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여성의 실질임금을 상승도 여성의 결혼 확률을 많게는 52.5%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

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화물열차 통째로 빌려쓰세요

정부, 기업물류 지원... 군산~광양 구간도

정부가 기업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돋기 위해 화물열차를 통째로 빌려주는 사업을 17일부터 전라선인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도 확대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화물 수송력 증대와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부선에 이어 전라선에도 블록트레이인 활용화하기로 하고 17일부터 전라선인 군산역-광양항 구간에서 화물열차 임대에 돌입했다.

정부가 블록트레이에 신경쓰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운송거리가 193km에 달하는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운송거리는 193km에 달하는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산역-광양항 구간에는 22량짜리 화물 열차가 투입되어 대한통운이 국보, 코레일로지스와 컨소시엄으로 이뤄져 대형우동차의 부품을 운송했다.

화물 열차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어 편리하게 철도로 화물을 나를 수 있는 서비스